

저자와 함께하는 책, 그 너머 이야기

# “‘편하게 살자’ 안의 탐욕이 화 불리”

**강사 :** 이일훈 (건축스튜디오 '후리' 대표)  
**일시 :** 2009년 1월 20일  
**장소 :** 마포 다보빌딩 대강당  
**주최 :** (재)대한불교진흥원  
**월간 '불교문화'**  
**주제 :** 더 깊은 아름다움을 찾아서

이일훈 건축가는 '채 나눔'으로 유명하다. 채를 나눠 동선을 길게 늘린 그의 건축 설계는 '동선을 짧게 할수록 좋다'는 기존 상념에 위배된다. 그의 느리게, 그리고 조금 불편하게는 '탄현재' '공리채' '작은 큰집' '가가불이' 등 주거건축에 녹아있다. '도피안사 항적당' 등 불교건축활동도 활발히 펼친 이일훈씨. 그는 1월 20일 월간 <불교문화> 화요강좌에서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가능한 삶을 지향하는 건축에 대해 말했다. 빠르고 편리함을 강조하는 현대문명 속에서 늘임의 미학을 외치는 그의 공간으로 들어가 보자.



**이일훈 약력**  
 1978년 한양대 건축과 졸업.  
 경기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대우교수 역임.  
 건축스튜디오 '후리' 대표.  
 서울시 건축상, 코리아어워드 등 다수 수상.

**#세상에서 사라진 것 다시 지어보자**  
 “정자가 사람이 만든 그늘이라면, 나무는 자연이 만든 정자다. 나무는 스스로 풍경을 만들어낸다. 사람의 손길이 거치지 않으면, 정자는 폐허가 되지만 나무는 더욱 더 나무다워진다. 건축적 잣대로만 정자를 보려하면, 건축의 아름다움에 가려 본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집에 가려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과 같다.” <모형속을 걷다> '정자와 나무의 공학'에서

우리가 만든 집은 땅위에 얹혀 있습니다. 100~200년 간다면 마치 나무와 같죠. 나무는 바람이 불 때 흔들리고, 낙엽을 떨구며, 자라면서 넘어지지 않도록 구조돼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유기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나무와 집은 매우 비슷합니다.

저는 집을 생각하면 나무가 떠오르고, 나무를 보면 집이 떠오릅니다. 건축가로서 일종의 직업병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편견과 고집이 가득한 건축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인연을 맺었습니다.

어느날 작업실을 옮겨줄 때입니다. 10여 년 동안 쓰던 공간이기 때문에 살림 곳곳에 많은 것들이 수납돼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작업했던 수많은 모형부터 정리해야 할 입장에 처했습니다. 치를 엄두도 못내던 차에 '모형을 부숴 버리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년이 넘게 간직한 모형을 부수며 그 흔적을 슬라이드 필름으로 남겼습니다. 부서진 모형들과 남겨진 필름을 보며, '이제는 세상에서 사라진 것들을 생각으로 다시 지어보자' 해서 나온 것이 <모형속을 걷다>입니다.

### # '채 나눔'은 조상들의 삶의 방식

저는 '채 나눔'을 주장하는 건축가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채 나눔'은 우리 조상들이 살아온 삶의 방식입니다. 저는 그것을 현대적인 방법으로 구현하고 덧붙였을 뿐입니다. 저는 '채 나눔' 삶을 현대적으로 적용함에 세가지 방법론으로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불편하게 살자'입니다. 건축을 비롯한 우리의 삶은 불편해야 합니다. 몇 대를 가도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불편하게 사는 것이 해답입니다.

저를 포함한 여러분은 자식들과 손자, 그 이후 자손들이 넉넉한 환경에서 잘 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 세대는 후손들에게 남겨줄 것까지 모두 까먹고, 파먹고, 태워버리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식과 손자들을 위한 길은 '불편함', 간단합니다. 그래서 삶의 방식 중 하나인 집을 짓는 근거로 '불편하게 살자'를 기반으로 삼았습니다.

두번째는 '밖에서 살자'입니다. 집의 공간을 구성할 때 뽕뽕 내부만 있는 방식으로 건축하지 말고, 구석구석 스펀지처럼 외부와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외부가 개입된 삶을 살자는 것이죠. '밖에 살자'의 반대는 '안에서 살자'. 이것이 더 심



이일훈 작 '우리 안의 미래 연수원'.

## ‘불편하게’ ‘밖에서’ ‘느려’ 사는 것이 ‘채 나눔’ 건축철학 경제·미적 요소 결합된 건축은 생활 담아내는 것이 중요

하지만 '안에서 살자'가 됩니다. 근대건축은 산업혁명 이후부터 내부지향적 공간을 만드는데 몰두해왔습니다. 콘크리트와 철강 산업의 발달로 인한 100층 200층 규모의 고층건물들이 탄생했습니다. 이런 건물들은 대부분이 내부지향적 공간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거대한 내부공간을 만들어 놓고, 자연을 그 내부 안에 담아놓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외부가 그리우니 바깥으로 나가자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집 한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사무건물에 들어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무실에 올라옵니다. 한번도 내부에서 벗어나지 않아도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외부로 놀러 나가자고 합니다.

내부지향적 살림의 극단적인 예가 김치 냉장고입니다. 삶은 바깥도 먹거리를 바꾸기는 어려우니 화석에너지에서 나온 전기로 쉬지 않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김치 하나 시원히 먹기 위해 화석연료를 엄청나게 태우는 겁니다.

김치를 밖에 놓으면 시원합니다. 밖에서 살아야 합니다. 밖은 여가와 유희의 공간이 아닌, 삶과 살림의 공간이 돼야 합니다. 1평이라도 외부공간을 늘려야 이것이 저의 두 번째 건축철학입니다.

세번째는 '느려 살자'입니다. 혹자는 '느리게'로 오해하지만 '길게 살자'입니다. 현대 건축의 가장 원초적인 불문율은 '동선은 짧을수록 좋다'입니다. 그 예로 '엘리베이터에서 모든 방이 가까운 것이 낫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은 고층건물을 만들 때는 맞지만 절대 원칙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들은 늘임 수 있는 것도 즐기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사는 주거공간에서 동선이 늘어봐야 얼마만큼 늘까요. 화장실 갈 때 1박2일 걸리겠습니까. 다만 몇 걸음을 더 걸을 뿐입니다. 현대인

들은 비판과 운동부족, 게으름을 탓하며 헬스 및 다이어트 등을 일부러 찾아하면서 정작 삶의 방식은 편리함을 추구합니다. '편하게 살자' 안의 탐욕이 모든 화를 부릅니다.

### #작가에게 직접 묻다

-건축가는 건축의 전문가입니다. 전문성을 요하는 건축의 세계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보편성의 측면에서 건축과 건축가는 무엇입니까?

건축은 의식주에서 주(住)에 해당하는 삶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식에 비유하자면, 매일 밥을 하는 사람은 요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먹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실 매일 하는 제일 중요한 요리임에도 요란하고, 화려하게 무언가 하는 것을 요리라고 생각

각하는 것이죠. 건축으로 돌아오면, 화려하고 거창한 것만이 건축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방 한 칸, 작은 공간 하나를 구성하는 모든 것이 바로 건축이죠.

건축가는 전문성을 요하지만 보편성을 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보편성이야말로 사람을 위한 건축의 본질입니다. 부처님은 특수한 상황에서 특수한 방법 맞추는 설법, 즉 대기설법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설법 자체가 특수한 것은 아니라 방편이 특수한 것입니다. 상황의 특수성보다 본질적인 보편적 가치가 상위에 있습니다.

-선생님이 설계한 건축물들이 예리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주변 환경과 조화를 얘기하시면서 초기 건축 작품들은 각이 살아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스텐레스로 만들어진 구는 완벽한 구의 입체지만 차가워 보이고, 스펀지로 만든 사각형이 부드러워 보이듯이, 형태가 무엇을 제한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품들이 직선 구성된 이유는 주제요인 나무기둥을 그대로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초기집은 이음을 써서 동글게 생겼습니다. 콘크리트는 각지게 네모나죠. 그 이음에는 물의 하중을 견디고, 재료와 기술이 연계된 고도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철근, 나무로 동근 건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디자인 욕구가 너무 반영된 인위적 건축입니다. 건축은 경제적 요소와 미적요소 등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됩니다. 일부분에 집착하지 않고 조화시켜 생활을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합니다.

<모형속을 걷다>는 제 생각의 일부입니다. 저는 제 후배들이나 선배 건축가들이 이런 책을 쓸 필요조차 없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불편하게 살고, 밖에 살자, 느려 살자."

정리=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불교와 문화' 강좌에서 저자와 책에 대해 논하는 독자들.

# 효사 육임 각 「활용서」·「CD프로그램」·「육임강론」 완결·최종판 출시·교환 안내

- 수백 권 (數百卷) 의 일반역서 (易書) 들과 비교될 활인서 (活人書) 가 아닙니다 -

“저는 금번 적중도·효과성·간편·속도성이 보장된 이 시대 최고의 우리 활인천역자용 활용서·학습서·CD프로그램을 그동안의 꾸준한 증산진화(增刪進化) 끝에 드디어 名品으로 완결시켰습니다. 또한 이전(以前) : 2008년 8월 기준의 제 모든 저술 육임 활용서·학습서·CD프로그램을 가격 고·저에 불문하고 아래의 「책」과 「CD프로그램」으로 교환해 드리고 있습니다.”  
 - 고복자 효사 -

<p><b>- 고도의 적중도와 효과성이 담보된 임상 실기 · 활용서</b></p> <p><b>曉史六壬刪策</b> <small>최종판</small></p> <p>정가 250만원 · 교환 90만원 (출시중)</p> <p>■ 권수선택 : 1권짜리 (60갑자 60일치 영구사용 합본) ■ 6권짜리 (60갑자 각 순별 10일치씩 영구사용 분권) ■ 60권짜리 (60갑자 각일별 영구사용 분권)</p> <p>◎ 위 「효사육임산책」 최종판 각일 각 문 시간별 구성내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왜 왔는가? 를 온 시간 밑에 일일이 써 있습니다.</li> <li>어떤 정황(情狀)인가? 도 각 시간마다 일일이 써 있습니다.</li> <li>일 방해하는 직사귀(作事鬼), 병 일으킨 병귀(病鬼), 동티나게 한 부정밀미(不正密米), 가쇠(家衰)의 산소탈(山所脫) 중 어떤 침범을 받고 있는가? 도 일일이 써 있습니다.</li> <li>이 귀신·부정·산소탈의 침해(侵害)를 수법(修法: 천도·구명시식·고사·굿·부적·양법 등)으로 해소 시킬 수 있는가? 없는가?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효험이 있게 되는가? 기도나 치성 일수를 몇일로 해야 영험할까? 등등까지 써 있습니다.</li> <li>귀신의 종·명(種·名)은 무엇이고, 부정밀미 이유는 무엇이며, 산소탈은 누구의 어디 있는 묘지이고, 묘지 불형화·묘지말 경관·좌향·묘지속은 어떤 상태인가? 도 세세히 써 있습니다.</li> <li>효사 초사(初辭)와 직지요결(直指要訣)을 한면의 상하(上下)로 배치, 내방자 심중을 정곡으로 찌를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가히 백미 올시다.</li> <li>신변·가정·사업·직장·대인·남녀관계의 비밀한 시간까지 순차적으로 지적해 놓고 그 개선 방침도 제시 해 있습니다.</li> </ol>	<p><b>- 원 터치 기능으로 기선제언이 제고된 활용 CD 프로그램</b></p> <p><b>曉史活人天役集</b> <small>완결판</small></p> <p>정가 450만원 · 교환 70만원 (출시중)</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방자 자신의 떠벌 문제(귀인길사자·직록길사자·승진·상대길사자·병자·관제자·빈궁자·불성자·산기자·본인제약·육친제약 등)을 일일이 기입해 놓았습니다.</li> <li>승부사승좌(勝坐向)·천성선약인·계희사성부(成否)를 방문시간마다 한 눈에 명시해 놓았습니다.</li> <li>항목(項目)별 문답(問答) 단정(斷定)을, 모방·공명·구제·시험취직·가정·혼인·출산·이동·소송·질병·여행·가솔·소식·가격·투자·도난·채용·경작·기후사 등 22가지로 분류시켜 달아 놓았습니다.</li> <li>「효사육임년신수비결」을 보정하여 매월의 길흉사는 물론 내·외 번수 사건까지 명시해 놓았습니다.</li> <li>최신간행된 효사육임사주감정법을 재정리시켜 명운(命運)과 대·세·월·일운이 한눈에 관별 되도록 구성시켰고, 당해운에 맞게 되는 질병종류와 육친(부모·형제·처·자식)의 길흉 해당사를 밝혀 놓았습니다. 가히 정수(精透)입니다.</li> <li>「육임공합법」을 적용, 내방자의 배우자 운세 평가를 한눈에 살피게 했고 평생관계를 적시해 놓았습니다.</li> <li>내방자가 온, 또는 전화한 그 해당 시간에 의해 위와 같은 사정들을 미리 알아 먼저 말하고, 그 적중도에 회멸하는 육임학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매우 쉽고도 허실없이 구성시켜 놓았습니다.</li> </ol>	<p><b>- 오솔지중제왕(五術之中帝王) 육임 종합학습 · 활용 제68분본</b></p> <p><b>曉史六壬講論集</b> <small>최종판</small></p> <p>정가 45만원 · 교환 35만원 (출시중)</p> <p>◎ 위 「효사활인천역집」 CD프로그램 완결판에 장착된 내용 명세</p> <table border="1"> <tr><td>육임산책 CD(육임배정법시리즈)</td><td>(분개판매)</td><td>250만원</td></tr> <tr><td>육임대계전서 CD(휴대용개편)</td><td>(분개판매)</td><td>200만원</td></tr> <tr><td>육임년신수비결 CD(개정본)</td><td>(분개판매)</td><td>100만원</td></tr> <tr><td>육임길흉성부단정 CD(최신판)</td><td>(분개판매)</td><td>50만원</td></tr> <tr><td>도사에게물어봐 CD (최신판)</td><td>(분개판매)</td><td>50만원</td></tr> <tr><td>출산길일길시택일법 CD(최신판)</td><td>(분개판매)</td><td>50만원</td></tr> <tr><td>효사속사주 CD</td><td>(분개판매)</td><td>70만원</td></tr> <tr><td>성명학 CD</td><td>(분개판매)</td><td>50만원</td></tr> <tr><td>매화역수 CD</td><td>(분개판매)</td><td>30만원</td></tr> <tr><td>부적보감 CD</td><td>(분개판매)</td><td>30만원</td></tr> <tr><td>동외보감 CD</td><td>(분개판매)</td><td>10만원</td></tr> <tr><td>월영도 CD</td><td>(분개판매)</td><td>30만원</td></tr> </table> <p>◎ 위 외 권장 활용서의 주문도 받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행제례의식집(최신판) 15만원</li> <li>○ 출산길일길시택일법 12만원</li> <li>○ 도사에게물어봐(최신판) 5만원</li> <li>○ 육임내정법(개정판) 35만원</li> </ul>	육임산책 CD(육임배정법시리즈)	(분개판매)	250만원	육임대계전서 CD(휴대용개편)	(분개판매)	200만원	육임년신수비결 CD(개정본)	(분개판매)	100만원	육임길흉성부단정 CD(최신판)	(분개판매)	50만원	도사에게물어봐 CD (최신판)	(분개판매)	50만원	출산길일길시택일법 CD(최신판)	(분개판매)	50만원	효사속사주 CD	(분개판매)	70만원	성명학 CD	(분개판매)	50만원	매화역수 CD	(분개판매)	30만원	부적보감 CD	(분개판매)	30만원	동외보감 CD	(분개판매)	10만원	월영도 CD	(분개판매)	30만원	<p><b>- 육임사주 학습 · 활용편으로 사주학의 신차원을 개척시킨</b></p> <p><b>曉史六壬四柱鑑定法</b></p> <p>정가 20만원 · 교환불가 · 학습 · 활용서로 구분됨 (출시중)</p> <p>■ CD장착 PC : 집무실 · 속도 · 노트북</p> <p>◎ 보고 판단만하게한 육임학에서나 가능한 육임 사주법!</p> <p>사주학의 역사는 깊다. 인간의 현부적 종성(種性)을 파악하고 향방(向方)의 길흉화복을 예지하는데 있어 매우 탁월한 술·학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의 사주학의 선포는 그동안 다른 오행술과는 월등한 차이를 두어왔다. 사계의 많은 선·후학들이 사주학을 했고 또 가장 먼저 입문하는 것이 상례이다. 그러나 조금만 살펴보면 사주학의 한계를 짚어낼 수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내면의 문제들에 대한 간결한 판단이 곤란한 구성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p> <p>오행술이란 「안 보이는 것으로부터 보이게 되는 현상」을 예지하는 것이고, 따라서 사람들이 듣고, 필요로 하는 것을, 사람들이 과거에 겪었고, 현재 겪고 있고, 앞으로 겪게 될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예언해 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두고 있는 것인데, 사주학은 인간에게 내재된 개체 존재로서의 품성성질이 무엇이며 어떤 변화를 일으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비교적 용이한 변별이 가능하나 사람들이 당면한 사건, 사안들의 세부단정에는 미흡함을 면하지 못한다.</p> <p>특히 현대인들의 삶은 「속도성」의 가치가 매우 커져서 길흉·성부·진퇴에 관한 좀더 명확한 판단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사주학의 이러한 제한성을 어떻게 극복시키고 정확한 속도성을 확립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 즉 시대성에 입각한 일견제(一見制) 판정에는 사주보다 일생제(一生制) 판정이 장점이요, 왕가월부(旺可月部)가 단점이요, 반면 육임은 일견제(一見制) 판정과 정황화(正象化)가 장점이요, 여기, 사주학에서 간과하고 있는 몇가지 무리 없는 육임법칙에 의한 응용효과를 제시함으로써 육임가나 사주가 나 할 것 없이 한층 심층적이고도 구체적인 길흉·번수의 변별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한다. 육임가는 한 수, 사주는 크나큰 진화개화(進化開化)될 것이다.</p> <p>■ 이상 주문 즉시 배송에 드리겠습니다.</p>
육임산책 CD(육임배정법시리즈)	(분개판매)	250만원																																					
육임대계전서 CD(휴대용개편)	(분개판매)	200만원																																					
육임년신수비결 CD(개정본)	(분개판매)	100만원																																					
육임길흉성부단정 CD(최신판)	(분개판매)	50만원																																					
도사에게물어봐 CD (최신판)	(분개판매)	50만원																																					
출산길일길시택일법 CD(최신판)	(분개판매)	50만원																																					
효사속사주 CD	(분개판매)	70만원																																					
성명학 CD	(분개판매)	50만원																																					
매화역수 CD	(분개판매)	30만원																																					
부적보감 CD	(분개판매)	30만원																																					
동외보감 CD	(분개판매)	10만원																																					
월영도 CD	(분개판매)	30만원																																					